

기호·상징 가득...강력한 생명력·희망 메시지

CULTURE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전남도립미술관, 래리 피트먼의 '거울&은유' 주제전

국내 미술관서 첫 선...사회재생 담은 7가지 연작 출품

현대 사회의 재생과 낙관적인 회복을 꿈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주제를 기반으로 유수의 전시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온 래리 피트먼의 작품이 국내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개막해 오는 6월 1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거울&은유'라는 주제로 열린 래리 피트먼(Lari Pittman)의 국제전이 그것으로, 지난해 10월 중국 상해 롱 뮤지엄 전시 이후, 한국 순회전으로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선보이게 된 것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 로셸 스타이너(Rochelle Steiner)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래리 피트먼의 회화 40여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래리 피트먼의 회화는 현대 사회의 재생과 낙관적인 회복 등 현대인의 삶에 대한 주제를 기반으로 하며,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주요한 일곱 가지 연작인 '사냥체' (臆念體, 2012), '카프리초스' (2015), '늑탄' (2015), '아이리스 슛 열림과 닫힘' (2020), '디오라마' (2021), '알 기념비가 세워진 도시' (2022), '알 기념비가 있는 반짝이는 도시'

(2023)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특별하다는 반응이다.

피트먼은 40여년에 걸친 다채로운 경력을 통해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발전시켜 동시대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작업은 밀도높은 중첩을 특징으로 기호와 상징의 어휘, 다양한 회화 기법의 조합, 독특한 색상 구성, 그리고 수공예와 장식적 요소에 대한 오마주 특성이 돋보인다.

그의 초기 작품은 에이즈 위기, 인종 갈등, 20세기 후반 LGBTQ+ (성소수자) 시민권 운동에서 파생된 사회정치적 투쟁의 영향을 받았으나, 근작들은 보다 심리적인 주제를 포함한 내면적 공간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알(Eggs)은 대표적 시각적 모티프로, 이 형태는 야경과 도시 풍경 속에 융합되며, 기념비처럼 자리하거나 언제든 생명으로 부활할 준비가 돼 있는 자연 풍경의 일부로 존재한다.

알은 그의 유토피아적 관점의 일부로, 생명의 풍요로움에서 망라된 여성성과 생명의 비전을 담고



'알 기념비가 있는 반짝이는 도시 #3' (2023)



'카프리초 #2' (2015)

있다.

또 다른 주요 모티프 '늑탄'은 흑백 작품뿐만 아니라 색채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빛을 발하는 램프와 환관을 암시하는 요소들은 밤의 신비로움을 전달하며, 그의 회화적 세계에 깊이를 더한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해야 할 작품은 그의 최근 연

작 '알 기념비가 세워진 도시'와 '알 기념비가 있는 반짝이는 도시'를 꼽을 수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19의 팬데믹 기간 제작된 이 작품들은 작가 특유의 밀도 높고 복잡하게 얽힌 이미지와 강렬한 색감이 특징적인 대형 회화 작품들이다. 그의 작품은 삶과 죽음, 사랑과 성(性), 소비주의와 자본주의 등의 주제를 일관되게 탐구해 왔으며, 이

애플문화도시 조성사업 일몰 대비 '새 전략' 모색

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제4회 7인 7색 7분 스피치'

이병훈 전 국회의원 발제 등 27일 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



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기초발제를 한다.

이 전 의원은 2031년까지도 설정된 조성사업의 기간 재연장 및 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글로벌 인재양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조성사업 추진체계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장), 종합계획·이특법 개정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용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행), 5대 문화권 조성 (김기곤 광주연구원 부원장),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2.0 (김허경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등 순으로 각 분야별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서는 조성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거버넌스 구축과 조성사업 기간 연장 및 새로운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호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용과 관련해 향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 강화에 대한 계획

을 들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 5대 문화권 분야에서는 지역적 관점에서 문화 인프라와 프로그램 간 균형 확보 및 새로운 문화도시체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2.0과의 연계 강화와 발전 방안 제안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전문가들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현상 진단과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로 하여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 전문가들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현상 진단과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로 하여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ACC재단 '온라인 극장' 영상 콘텐츠 참여하세요

공연·다큐·필름 등 27종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선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는 'ACC 온라인 극장'에 참여할 국내 기관을 10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전당 창작·제작 콘텐츠를 영상으로 담은 'ACC 온라인 극장'은 공연 영상 18편과 다큐멘터리 4편, 필름 5편 등 총 27개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 영상은 올해 일대에서 열리는 베세토 연극제에 초청받은 '시간을 질하는 사람'을 비롯해 어린이 공연 '개굴개굴 고래고래', '거인 앙굴로' 등 18편이다.

다큐멘터리는 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을 담은 연속 기획물 '위대한 유산' 4편을 유통한다. '위대한 유산'은 전당과 한국교육방송공사



'개굴개굴 고래고래' 공연 모습.

(EBS),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다큐멘터리 상영을 신청하는 기관에는 영상과 함께 교구제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필름은 2015년 아시아태평양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전관람의 무덤'을 비롯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인권의 향배', '스틸 사이드', '선유후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모는 영상 상영시설을 갖춘 문화예술기관, 교육기관,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상영기관을 선정한다. 전당재단은 선정된 기관에 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해당 기관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무료로 상영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당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섬 소년이 맨 몸으로 겪은 '세상 풍파' 그려

정택진, 세번째 장편소설 '굿' 출간 이외수문학상 수상자...70년 배경 과거사 살 내력 드러낸 성장기 초점



하는 어린 시절, 육지에 가본 적도 없는 소년은 아버지와 할머니를 거의 동시에 잃고 가장이 된다.

소년의 아버지는 "알의 허기를 채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 집에 수심 권의

2013년 소설 '결'로 제1회 이외수문학상(1억원 고료)을 수상한 정택진 소설가가 장편소설 '굿' (문학작)을 펴냈다. 2019년에 발표한 '폼'이 이어 세 번째 장편이다. 그간 발간한 그의 소설을 시간적 순서로 놓는다면 이번 소설이 그 첫 번째가 된다. 소설 '결'이 의형제를 맺었던 세 친구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풀어내는 한국 현대사의 이야기라면, 작가의 자전 소설 성격이 짙은 '폼'은 섬 소년과 도시에서

사는 소녀의 사랑과 꿈이 1980년 광주를 거치면서 상처 입고 뒤틀러가는 이야기이다. 장편 '굿'은 제7대 대통령 선거(1971년)가 있었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섬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맨 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세상의 풍파를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어른이 돼 가는 어린 주인공의 심리적, 도덕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성장소설의 성격을 띤다. 1970년대 남도의 어느 섬마을을 배경으로 배가 아니면 드나들지 못했던 고립된 장소이자 정치 성향에 따라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감당해야 했던 아반의 시대에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염진혁은 중학교 입학 전에 집안의 대를 보였던 아버지가 병환으로 사망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천금보다는 귀한 아들을 잃었다는 충격으로 몸져누운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난다.

동무들과 산, 들, 바다를 쪼다리며 놀아낸 바 있다. 김다경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고려

정택진 소설가는 전남 원도 청산도에서 나고 자라 구미에 있는 금오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기술사관으로 복무한 뒤 성공관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제학 중 '바람의 뿔'이 청년심문학회에 당선됐으며 2013년 1억원 고료 제1회 이외수문학상에 중편소설 '결' (해남 권)이 당선됐다. 2015년에는 '악아'로 대산장작극(소설 부문)을 수혜받았으며, 2019년에 장편소설 '폼' (컵앤컵 권)을 펴낸 바 있다.

씨어터연바람, 지역 예술인 공연 활동 지원

상주단체 모집 30일까지

지난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극단 푸른연극마을과 소극장 씨어터연바람이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에 나선다.

씨어터연바람이 무대에 오를 상주단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연극, 국악 등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단체로, 3팀을 선정한다. 지원조건은 공연장 무료 대관, 공연제작비 200만원과 홍보·역량 강화 지원 등이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주 2회 이상 활동해야 한다. 7~8월 중 공연은 필수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지원신청서와 포트폴리오(자유양식), 2025 공연계획서와 활동계획서를 이메일(greentheater@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차 서류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푸른연극마을 관계자는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30년, 소극장 씨어터연바람의 29년은 관객과 동료 예술인 등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이에 우리 단체는 지역에서 쉽지 않은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후배 예술단체들에게 미려하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블로그 씨어터연바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6-2446.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